

군산항 · 신항 One-Port 전략수립

군산시, 기능 상호보완적 발전방안 제시 위해

군산시가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보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 1·1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략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분쟁 중인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행정적·자연환경적·지리적인 관점에서 조성 배경 분석을 통해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

다.

또,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 및 군산항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군산새만금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兩 항만의 균형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해운·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한 군산항과 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과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4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항만관련업체 간담회와 유관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결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으로 1단계로 200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을 건설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경관조명전문업체 (주)뒤에있다를 익산합열농공(전문)단지에 유치했다.

“기업성장 위해 익산에 투자”

합열농공(전문)단지 경관조명 '뒤에있다' 기업유치

익산시가 경관조명전문업체 (주)뒤에있다를 익산합열농공(전문)단지에 유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15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익산LED합열농공단지개발(주)김진곤 대표, (주)뒤에있다 이장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뒤에있다는 익산합열(전문)농공단지 1만 2688㎡부지에 2026년까지 44억원을 투자해 3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뒤에있다는 공영기획에 맞춘 LED경관조명기구, 유등조형물,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주요 매출처

는 전국 30여개 지자체 등에 다양하게 납품하고 있다.

2017년도에 충북 영동군에 법인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전북의 역세권과 호남지방의 물류공급 및 사업의 영위를 목표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정현을 시장은 "LED경관조명기구 및 유등조형물 등을 제조하는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며 "미래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기업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익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시디자인에 시민목소리 담는다

경관계획 재정비·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주민공청회

익산시가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배려한 도시 디자인 계획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15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기 수립된 경관계획이 5년이 경과되어 경관법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우선 경관분야 계획(안)은 백제 고

을 수립했다.

제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빛나는 역사 함께 누리는 일상 비전 아래 △빛나는 역사도시 △쾌적한 생활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소통하는 지속도시의 4대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현장 의견을 담기 위한 주민제안제도 등 함께 만드는 참여제도 구축 방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계획(안)에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해 각 가이드라인 체계 마련, 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조직 개편 방안 등도 반영됐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을 수립했다.

제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빛나는 역사 함께 누리는 일상 비전 아래 △빛나는 역사도시 △쾌적한 생활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소통하는 지속도시의 4대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현장 의견을 담기 위한 주민제안제도 등 함께 만드는 참여제도 구축 방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계획(안)에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해 각 가이드라인 체계 마련, 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조직 개편 방안 등도 반영됐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패션산업시험연구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협약 체결

익산시가 국내 주얼리 기업들의 국제 품질인증 확대를 주도한다.

시는 세계적인 품질 공신력을 획득한 주얼리 전문 국가기술표준원(KOLAS) 공인시험기관을 갖추고 있어 서울지역 주얼리기업들이 품질인증 시험분석을 위해 익산을 찾게 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사)패션산업시험연구원 이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주얼리제품 품질분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주얼리 원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기업들의 품질분석 및 공인 성적서 발급 등 품질 공신력을 높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기업들의 품질분석 및 공인 성적서 발급 등 품질 공신력을 높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주얼리기업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게 되며, 비용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가 시험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귀금속 합량 분석, 도금두께 분석, 알러지 및 유해 물질 분석 등을 지원 할 예정"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군산시 홍보관 운영

군산시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동안 군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대회에는 170여개국, 4만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각국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군산을 세계에 알리고 방문객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3강좌 18일 운영

오는 18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3강좌가 열린다.

이번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3강좌는 성공미래 양성식 대표를 초청해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식 대표는 부산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CI그룹 핵심인재 트랜드 인사이트 워크샵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민대학, 경북도민행복대학, 인천 MICE 창업지원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비례를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엘리트풀러처럼 생각하는 법', '트랜드 지수 TQ를 높여라' 등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창의융합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실례를 들어 수강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펼쳐줄 예정이다.

수강생은 20명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평생학습정보망에 접속하거나 군산시 교육지원과에 전화(☎ 454-2802)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강연 당일 현장 접수로 입장 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알파세대 시각 '서동요' 재해석 공모전

익산의 상징 '서동요'가 알파세대 시각으로 독창적이고 트렌디하게 재해석된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동요 선화공주의 사랑 설화, 서동요를 모티브로 노래·랩 창작과 댄스 챌린지인 '이리플래닛-III HANET'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K-POP 보이그룹 데뷔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 익산의 예전 지명인 이리를 접목시켜 '이리플래닛'으로 정했다.

'이리플래닛'은 익산의 고유한 역사 문화 콘텐츠인 백제 무왕 '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서동=익산이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익산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백제왕도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동요'로 주제를 선정했다.

'이리플래닛'은 노래 및 랩 창작과

댄스 챌린지의 두가지 버전으로 진행하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서동요' 음원을 토대로 청소년의 창의적인 재능과 역량을 발휘한 노래 및 랩, 창작 안무를 만들어 오는 24일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항목은 창의성, 주제부합성, 완성도, 활용가능성 등이며 1차 심사는 지역 청소년 활동가들이 100%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진행 후 2차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50%)과 온라인 투표(50%)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예선을 통과한 작품에 한해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업로드 후 '좋아요' 개수로 투표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은 서동이 태어나 무왕이 되어 수도를 천도한 지역이다"며 "이번 공모에 전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로 백제왕도 익산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